



반증주의를 적용하여 사회과학의 특징 분석-거시경제학 사례분석 [과학과 철학]과 [거시경제학] 강의페어링 경제학과 201222016 정성일, 이진희 교수님 지도

목적

반증주의를 적용하여 케인즈학파와 고전학파의 '정부의 시장 참여'이론을 비교분석해보며 이를보고 사회 과학의 특징을 분석해본다

반증주의 적용

반증주의는 과학 이론의 형성 과정이 반증을 통하여 이뤄진다는 이론이다. 한 마디로 어떠한 이론이 반증을 당하면 기존 이론이 새로운 이론으로 대체당하거나 기존 이론이 수정되며 과학이 발전된다는 것이다. 즉 어떠한 이론은 그 이론이 반증당할 때까지 과학으로서 유지되는 잠정적 과학이라는 것이다. 특히 사회 과학은 인간의 심리와 행동이라는 불확실한 변수가 포함되어 이론의 반증빈도가 굉장히 높다. 반증주의를 적용하여 경제학의 두 주류 학파인 케인즈 학파와 고전학파를 비교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 과학의 특징을 분석해본다

케인즈 학파

케인즈 학파 : 케인즈 학파는 대공황 시기에 등장하였는데 당시 경제대공황 현상을 설명하고 그를 극복하고자 나온 경제 이론이다. 당시 공급의 과잉으로 수요가 공급을 충족하지 못하여 대공황이 발생하였다. 이는 당시 주류 이론이었던 고전학파의 '정부의 경제개입은 최소화 되어야한다'는 가정의 오류를 보여주는 결과였고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케인즈 학파의 '정부의 경제적 개입은 필요하다'는 기존과는 상반된 이론을 적용한다.이 사례에서 반증주의에서 말하는 '기존 이론의 반증으로부터 새로운 이론이 등장하고 그렇게 과학은 발전한다'는 과학의 형성 과정을 볼 수 있다

고전 학파

고전 학파 : 고전 학파는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가정인 '아무런 개입이 없는 시장에서의 경제 현상' 을 충족시키기위해 '공정한 시장경쟁을 위한 심판자로서 최소한의 시장 참여'를 강조하는 이론이다. 대공황 이후 케인즈 학파에 비하여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70년대 오일쇼크가 발생하면서 다시 그 권위를 획득하였다. 케인즈학파에게 반증당하였던 고전학파는 이 때를 기점으로 다시 케인즈학파를 반증하였고 기존의 고전학파에서 약간의 수정이 들어간 신고전학파라는 이름으로 재등장하였다. 고전 학파는 대공황 시기에 케인즈학파에게 반증되었고 다시 70년대에 케인즈학파를 반증하여 현재는 케인즈학파와 양립하고있다.

두 학파의 과학적 타당성 비교

일단 고전 학파는 케인즈학파보다 먼저 발생한 이론이다. 고전 학파는 시장참여자 즉 인간의 행동을 상황이 같다면 항상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그렇지만 인간의 행동이란 것은 항상 같을 수 없으며 같은 행동이어도 원인이 같다고 말하긴 힘들다. 그렇기에 정부의 역할이 최소화된 상황에서 맞이한 대공황은 고전학파의 가정을 무너뜨린 사례였다. 그 이후 인간의 심리적 측면을 가정한 케인즈 학파의 이론이 등장한다. 케인즈 학파의 이론은 인간의 심리를 어느 정도 감안하여 만들어진 이론이다. 하지만 케인즈 학파의 이론조차 70년대 오일쇼크를 기점으로 실패하였다. 현재는 두 학파가 양립하고 있다.

반증주의로 본 사회 과학의 특징

반증주의의 관점에서 고전학파의 반증으로서 케인즈학파가 등장하였다. 또한 케인즈학파의 반증으로 신고전주의가 탄생하였다. 반증주의적 시각으로 자연과학을 분석하면 기존의 이론은 반증당하면 폐기되고 대체된다. 즉 양립불가능한 특성이 있다. 하지만 케인즈학파와 신고전주의는 서로를 반증하면서 양립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근본적인 차이에서 생겨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 과학은 항상 변동하는 인간의 심리와 통제되기 힘든 여러 상황들을 변수로 포함하고 있다. 그렇기에 서로를 반증하고 있는 두 이론을 상황에 따라서 각각 적용할 수 있고 그로인해 양립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사회과학에선 어느 한 이론이 다른 이론을 완전히 대체되지 않고 공존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다